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C o n t e n t s

1. 상담수기

내 마음이 힐링 되는 이야기
최고의 복지란?

성정아(사회복지정책상담팀) 1
송인영(보건의료정책상담팀) 3

2. 에세이

너의 목소가 들려
멋진 업무로 다시 서는 그 날을 응원합니다!

이영실(위기대응상담팀) 5
이윤정(인구정책상담팀) 7

3. 보건복지정보

- 1.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9
-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이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1
- 3. 가을철 발열 질환 감염 주의 당부 14

4. 129소식

이달의 행사 및 활동 16
상담원 교육 / 우수상담원 17



내 마음이 힐링 되는 이야기



성 정 아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보건복지콜센터에 신입상담원으로 입사한지도 9개월이 훌쩍 지났다.
입사 후 독거노인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통화를 하며 느끼는 감정들이 나를 새롭게 할 때가 많다.

처음 어르신들께 안부전화를 드릴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나가야 하나... 하는 걱정에 부담으로만 다가왔었다. 그러한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 형식적인 안부인사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보미 서비스 같은 정보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곧바로 전화를 마무리하기 일쑤였고, 내가 부담스러우니 어르신도 나와의 통화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전화 드리기가 싫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계시는 어르신께 친손주처럼 부담없이 말씀을 드려보자’ 라고 마음가짐이 바뀐 계기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로 시작하는 안부전화를 드릴 때면 “아이고~ 성양!!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지. 너무 반가워” 라며 구수한 음성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할아버님 때문이었다.

나와 일주일에 두 번씩 통화를 하실 때마다 멀리 타지에 있는 내 또래의 손녀가 생각나신다며 따뜻한게 대해주시는 어르신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 나의 안부

를 진심을 담아 걱정해 주시곤 하신다. 오히려 내가 먼저 챙겨드려야 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실 때면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곤 한다.

5월엔 어버이날을 맞아 안부전화를 드리는 어르신들께 직접 손편지 엽서를 보내드렸는데, 그 편지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 궁금하던 중 어르신께서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로 오랜만에 받아본 손편지라며 고이 간직해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번졌다.

몇 해 전 세상을 달리한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다는 유행가 노랫가락을 읊어주시기도 하고, 마을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상생활의 소소한 면들을 말씀해 주실 때면 실제로 어르신과 얼굴을 맞이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 들어 이제는 내가 먼저 어르신과의 통화시간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더이상 내가 어르신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힐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이 담배 피우시는 걸 알게되어 금연을 권하며 다른 간식을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니 잔소리하던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웃으셨을 때나, 지역에서 나눠주던 물품이 어르신께만 누락되었을 때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 물품이 전달되어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 마음에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르신과의 인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어르신,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지란?



송인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여보세요??”

보건복지콜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여보세요’ 라는 한마디에서 직감한다.

‘아... 힘들겠구나..’

“나는 암환자입니다. TV와 인터넷에서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걱정 없게 모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떠들더니 대체 뭘 해준다는 거죠!!”

“아~네 산정특례신청은 되어있으신지...”

“산정특례 신청해봐야 비급여는 지원도 안되고 정작 혜택은 얼마 되지도 안되는거 모르나요!!”

“아~네 그럼 국가암검진대상자로 검진 받고 암 판정을 받은 경우 암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인지 뭔지 뭐 대단히 암만 걸리면 다 지원해 주는것 같더니 5대암중에서만 되고 또 국가암대상인지 뭔지 대상자들만 되고..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고 대체 누굴 위해서 뭘 지원해 준다는거요.”

그 뒤로도 긴급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등 말씀드렸으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전화하신건지 모두 부정적인 말씀 뿐이었다.

‘아~ 어찌해야 하나...’

그때 문득 몇 년 전 엄마가 암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식사도 거르고 우울해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의 짜증과 우울함은 다행히 용종 제거 수술을 한 후에야 없어지셨다.

엄마가 생각하면서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늘어나 되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까지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셨다.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고, 엄마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더욱 진심이 담았다.

그분도 지원제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해서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30분간의 통화가 끝났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일하면서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왜 항상 부족하다며 하시는지 생각한 적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고마운 마음 또한 느낄 수 없는 빈껍데기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기 전까지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상담원이 될 것이다.

멋진 엄마로 다시 서는 그 날을 응원합니다!



이 윤 정
| 인구정책상담팀 |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안타깝고 마음에 남는 사례들이 있다. 나의 경우는 입양에 관련된 전화를 받고 나면 늘 마음에 진한 앙금이 남는다,

작년 8월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숙려제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입양 숙려제는 아동이 출산한 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출산 후 불안정한 상태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되었다. 이 입양 숙려제를 놓고 유기되는 아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입양 숙려제는 버려진 아동의 증가가 아닌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신중한 결정은 해외입양 아동수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입양 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입양 숙려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나 산후 인력을 파견 제도가 신설 되었는데, 실제로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의 아버지와는 헤어지게 되었고, 갈 곳이 없거나, 산후 조리에 대한 염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로써 출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시군구의 입양부서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직접 산후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미혼모자시설에서의 이용, 산후조리원 등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모자지원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작은 제도들이 모여서 미혼모와 유기 아동발생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과, 미혼모 여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작년 한해 미혼모아동의 입양 신청자 수는 천여명이 넘는다. 아기들의 환한 웃음과 천사같은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조금만 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멋진 부모가 되어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 실
| 위기대응상담팀 |

너의 목소리가 들려

얼마 전 종영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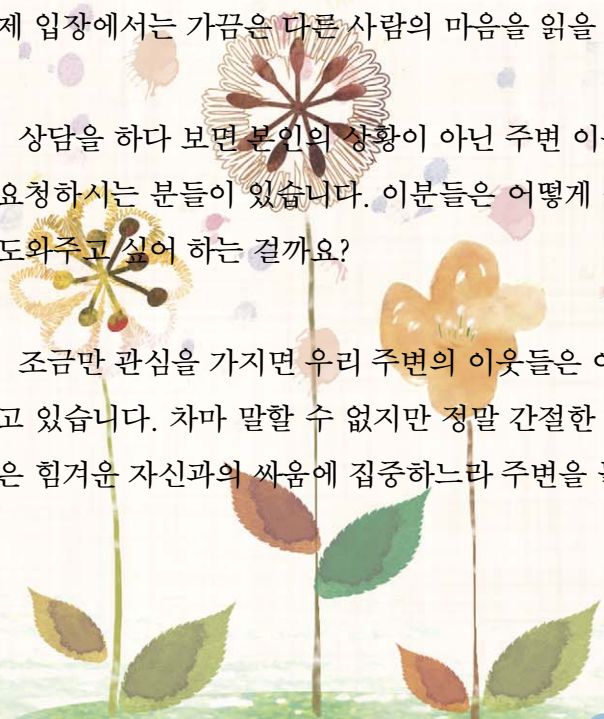
상대방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 때문에 아주 큰 인기가 있었죠.

저는 요즘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합니다. 특히 위기상담을 하는 저로서는 상담 중 고객이 표현하는 것 외에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답답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도와달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객들의 눈도, 표정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부럽기만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상황이 아닌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안타까워하시며 발벗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것 입니다.



인간도 감정의 동물이라 관심만 기울이면 직접 보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 특별한 능력은 사용하지 않아 퇴행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찾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다면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있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34,223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현금급여기준	2014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68,453	488,063
2인 가구	797,636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807,152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 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이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9.6일(금)부터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인증-미인증여부, 우수어린이집 공개 → (개선) 상세정보 공개

○ 세부 공개내용은 ▲ 평가인증 여부, ▲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 종합 평가서**, ▲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점수*** 등으로

* 평가인증 영역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 종합 평가서 : 영역별 세부 개선내용, 총평 및 향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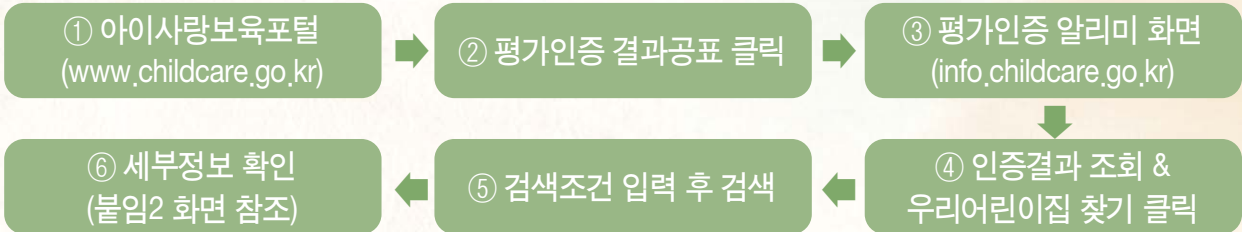
*** 어린이집 유형 :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 부모, 어린이집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각 어린이집의 평가영역 균형도*를 함께 제시하여 각 영역별 우수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및 설립유형 평균 등을 함께 제시한 방사형 그래프

○ 동 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평가인증 알리미' 및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되며 '13.11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 이용 방법 및 주요 화면 〉



번호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명	주관	기준 점수	보육평가 및 운영관리(경영, 관리)	보육 태양	안전관리 실수발생	건강과 영양	관리 태양	평가 연도 내원
59	★	북화 어린이집	북	95.91	92.60	97.33	96.67	93.33	97.33	94.00 2010-01
58	★	SK발복어린이집	북	98.88	92.47	100.00	100.00	98.00	97.33	100.00 97.33 2010-04

○ 또한 매월 새롭게 인증을 받거나, 취소되는 어린이집 현황 등 최신자료를 “평가인증 알리미”에 즉시 반영하여 부모 등은 가장 최근의 평가인증 결과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서류 심사, 현장 관찰 등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중 자체포기, 법적기준 미준수, 기준점수미만 등의 사유로 21.8%정도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13.7월말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한 어린이집 규모는 28,65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65.7% 수준이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인증 참여·유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90.0%, 법인 86.3%, 민간65.7%, 가정62.7%, 직장51.8%, 부모협동 35.5% 순

○ 또한, 인증어린이집의 상시적 질 관리를 위하여 ▲원장 교육, ▲보육 컨설팅, ▲확인 점검,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온 결과,

- 평가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3년주기로 재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이 지속 증가하여, 인증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이후 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평가인증 지표를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지표개선방향 : 문서→현장확인 위주의 평가, 교사처우개선 등 성과지표 추가, 영유아 구분 등 지표 변별력 제고 등

○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노력으로 인증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금번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를 통해 부모님들은 주변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으로 보육서비스 질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을철 발열 질환 감염 주의 당부

- 진드기 매개 쯤쯤가무시증 집중 발생 계절 도래 -

-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에 주로 병원체의 활동이 증가하여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쯤쯤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의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매개되는 쯤쯤가무시증은 유충이 주로 번식하는 가을철(9~11월)에 집중 발생(약 90%) ▲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점수*** 등으로
 - '08년 6,057명, '09년 4,995명, '10년 5,671명, '11년 5,151명, '12년 8,604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
 - ※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4~11월까지 서식하며 가을철에도 지속 발생할 전망
- 설치류 매개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신증후군출혈열은 가을철(9~11월)에 주로 발생(약 60%)
 - '08년 375명, '09년 334명, '10년 473명, '11년 370명, '12년 364명 발생
- 논경작지나 개울 등 활동 중에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약 80%)
 - '08년 100명, '09년 62명, '10년 66명, '11년 49명, '12년 28명 발생
- 이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행동수칙 실천을 당부하면서,
 - 특히 상기 질환의 매개 환경과 상시 접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과 자연환경으로 야외활동을 나서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건강행동수칙 실천을 강조하고
 - 상기질환은 야외활동 후 발열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으로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 수칙

〈SFTS,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질환 건강행동수칙〉

-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 (수풀, 나무 우거진 곳 등) 에는 가급적 가지 않습니다.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 풀밭 위에 앉을 경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도록 합니다.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소매와 바지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즉시 입었던 옷을 털고, 꼭 세탁합니다.
-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주위, 무릎 뒤, 다리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줍니다.

〈렙토스피라증 건강행동수칙〉

- 쥐 등의 설치류 배설물에 오염된 젖은 토양, 물과의 피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벼 베기 작업 및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보호구(장화, 긴 옷 등)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증후군출혈열 건강행동수칙〉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 풀밭에서 옷을 벗어 눕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각종 행사 및 활동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함께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 기념식



상담원 교육

일 자	교육내용	대상
8. 5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교육	위기대응상담팀 6명
8. 6	긴급지원사업 안내	위기대응상담팀 23명
8. 19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3명

우수 상담원

BEST 상담원

이채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송지나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혜영 (인구정책상담팀)
 김빛나 (위기대응상담팀)

JUMP UP

조은경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조정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이윤정 (인구정책상담팀)
 박혜진 (위기대응상담팀)

129 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최경미 (인구정책상담팀)
 상담시간 최장 : 성정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